

정원 가드닝 설계 시공 실무(5)



송 광 섭
이투데이 증권부장



보고 또 보고 싶은 정원을 만들자

조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낮다고만 탓할 게 아니다. 관계부처와 건설업체의 잘못도 크다. 일정 비율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연연하다 보니 아름다움을 연출하기보다는 적당히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급급하다.

식재되는 수종도 소나무와 주목, 회양목 등 너무나 친편일률적이다. 소나무는 관리가 까다로운 점이 있지만, 전나무 주목 회양목은 잘 자라며 관리의 손

길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중에 뒷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잘 죽지 않는 나무들로 공사를 하고 있고, 건물주들도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계부처에서도 지구 온난화와 대기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공원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경작업을 한 이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나중에 쓰러기 더미로 변질하고 만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식물들은 사람을 키우는 것과 같기에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쉬 죽게 되고, 조경 작업 하기 전보다 더 흉한 모습을 보이고 만다.

건설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조경업체 또한 그 규모가 작고 전문성 또한 크게 뒤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조경 작품이 나올 리 만무하고 시민들의 외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과 조경을 한 분야로 잘못 보고 있다는 점이다. 조경을 별도 범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조경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조경 예산을 늘려도 전체 건축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하청, 재하청 고리를 끊고, 보다 나은 작품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조경을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드닝(Gardening)은 예술이다

정원들은 대부분 권력이나 이상향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집트의 정원은 종자 수집 목적 외

에 감상을 위해 조성됐고, 그리스와 로마의 정원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도원경을 재현하기도 했다. 이슬람과 중세의 정원은 경전에서 묘사하는 천국의 이미지를 정원에 투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원들은 신화를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낙원 이미지를 투사한 정원들은 경전과 같은 이상향의 재현수단이자 감상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커다란 성이나 수도원에서 정원사들이 빈 공간에 나무와 화초를 심기 시작한 것도 조경 발전에 일조했다. 이후 농가에서도 소규모 정원을 만들면서 특정 계층의 소유물이란 인식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정원도 본격적으로 일반화, 대중화된다. 19세기 후반부터는 각 나라별로 조경 박람회가 개최되는 등 규모와 범위가 날로 커지고 있다. 조경 박람회는 조경 붐 조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을 극복해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지배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에서 미를 눈앞에서 감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에서 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도시 공기가 오염되면서 시민들이 건강이 악화되고 노동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와 자본가들이 대규모 정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깨끗한 공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근대적인 도시공원의 시초다.

정원은 기하학적인 형태부터 불규칙한 자유형태까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은 인공적인 건축공간에 자유곡선 형태의 식물을 배치해 디자인하게 된다. 식물을 식재하게 되면 건물의 딱딱함을 완화시켜주고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해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의 정원 요소들과 식물의 혼재는 오히려 무질서라는 역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식물을 식재할 때도 색 대비, 높낮이, 넓이 등 생태환경에 맞게 배치를 해야 한다. 식물 식재 시 보다 환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같은 녹색이라도 명도가 높은 밝은 녹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질감은 정원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잎이 작고 고운 질감의 수종으로 조성된 정원은 차분하면서도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반대로 잎이 크고 거친 질감의 수종으로 조성된 정원은 동적이면서 활기찬 느낌을 준다.

지나치게 여러 종류의 구성요소가 혼재되면 다양성은 높아지지만, 시각적 혼란스러움으로 산만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축공간과 어울리게 다양성을 낮추는 대신 단순함을 강조해 간결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형물이 강조된 공간의 경우 정원을 단순하게 조성해 상대적으로 조형물을 돋보이게 하는 게 좋다. 반대로 식물의 다양성이 높은 정원에서는 시설물의 형태나 색채를 단순화시키고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식물의 형태, 색채, 질감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과 조화, 비례, 강조, 대비 등을 통해 정원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같은 실내 공간에서도 공간 성격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사무실 휴게공간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초점의 대상이 되기에 킹벤자민, 고무나무, 비로야자, 휘닉스 야자 등 수형이 아래로 향하는 수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수형이 아래로 흐르는 식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또 휴게 및 만남의 기능을 가진 공간은 머무는 시간이 길고 실내 정원을 감상하는 시간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종과 경관을 고려해 정원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

백화점 등 상업공간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상품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매장 내부에 흰색이나 미색계통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진열된 상품을 최대한 노출시키면서도 매장 내부를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조경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주변과의 조화-자연과의 친화성

정원 및 조경 작업 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자연과의 친화성이다. 자연을 우리 가까이에 끌어오는 것인 만큼 지나칠 정도로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손길이 닿아있는 것이기에 완전한 자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식물 생태학적인 접근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필자는 경기도 모 신문사 옥상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큰 실망감을 느끼고 돌아온 적이 있다. 옥상에 하늘공원이라는 것을 조성했는데, 식물 생태학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정원을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야의 조경물만 설치해 놓은 데다 옥상조경에 결코 적합하지 않은 잔디를 식재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 조경 현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바짝 바른 바닥에 군데군데 심어진 잔디가 제대로 자랄 턱이 없다. 잔디는 적절한 배수와 수분공급이 필요한 까다로운 식물이다. 막대한 비용만 고스란히 날렸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 화단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자. 식재된 수종이 대부분 획일적이고, 화단 모양도 너무나 단조로운 형태를 하고 있다. 일부 화단의 경우 조화로 눈속임을 해놓은 곳도 있다.



보면서 심리적인 위안과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화단이 아니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시각적 폭력을 행사하는 곳들이 많다. 연못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수초 하나 띄우지도 않은데다 산소 공급을 위한 분수나 수질 정화 장치를 설치해 놓지 않아 물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조경 작업 시 무엇보다 예술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마구 심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색채 구성에서도 친환경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급적 백색, 갈색, 녹색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 시각에 거스르지 않은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물군의 적절한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수생식물은 수생식물끼리, 건식은 건식끼리,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 같은 성격의 식물들의 경우 여기저기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군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사람도 끼리끼리 어울리듯 식물도 같은 종끼리 한곳에 모아 식재하면 보기도 좋고, 식물 식생에도 도움이 된다.

가드너(Gardener)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

가드너는 만능인이어야 한다. 단순한 시공자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종 조형물을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하기에 조형재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고, 조경재료가 있는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식물의 생태학적 특성도 숙지해야 한다. 계절과 장소에 따라 적절한 식물군을 식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소양이 요구된다. 각 식물의 특성과 생리, 생태, 형태 외에 재배-이식-비료-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예술적인 시각과 감각은 기본이다. 나무와 화초가 다 자랐을 때를 예상하고 식물을 식재해야 한다. 식물별로 어느 정도의 크기와 넓이, 높이로 자라는지 알고 식재를 해야 한다. 발품을 많이 들여야 하고, 어느 정도 체력이 필요한 만큼 건강한 신체 단련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견 조율 능력도 중요하다. 자기 작품 세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만든다는 프로의식하에 건축가 설계자 조각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고객에게 조경 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로서만 되는 게 아니기에 식물계획도 시공계획도, 작품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각종 다이어그램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고객의 심리와 취향도 염두에 뒀다. 각기 생각하는 미적기준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작품을 설계해 제시해야 한다.

가드너는 누구보다 자연에 대한 강한 사랑과 열정

이 있어야 한다. 자연을 재창조해 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자연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단지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아닌 만큼 나름의 철학과 예술관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조경과 관련된 각종 재료 다루는 법을 충분히 습득해야 하고 설계작업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올스테드의 조경철학과 사상

미국의 조경가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농부 집안에서 태어나 저널리스트, 위생국 서기관 등으로 일하면서 사회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그에게 있어 조경 설계는 장식적 수준을 넘어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목적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공원이 사회 개혁이 수단이자



사회 개혁 활동의 또 다른 형태였다.

그는 누구보다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미적 감각이 뛰어났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경건함을 체득했다. 그는 센트럴파크 감독관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경가의 길을 걷게 된다. 올스테드는 예술이 사회적인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다. 도시공원을 조성해 도시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1857년 뉴욕공원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정책을 감독하는 자리에 지원한 올스테드는 이듬해 공원 현상공모에 영국 출신의 건축가 칼 베르보와 함께 작업한 '그린스워드(Greensward)'안이 당선되면서 공원 설계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센트럴 파크 부지는 원래 쓰레기 더미로 덮인 습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연스런 미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거대한 토목공사의 결과물이다.

그는 목가적인 전원,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했고, 대다수 도시민들이 동경한 전원의 경치를 도심 한복판에 옮겨놓음으로써 당시 미국인들이 꿈꾼 전원적 이상을 실현해주었다. 그는 센트럴파크 감독관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경가의 길을 걷게 된다.

올스테드는 예술이 사회적인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다. 도시공원을 조성해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센트럴파크의 성공은 미국 전역에 도시공원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